

보안문제 없다지만... LGU+, 5G 시작부터 '좌불안석'

화웨이 사태 국내 파장은

5G·유선망 보안 이슈 재점화
이통 3사, 美·中 갈등 예의주시

화웨이 5G 장비 택한 LGU+ 긴장
KT도 은행망 장비 선택에 우려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최고 재무책임자(CFO) 명완저우 부회장 체포 사태로 미중 갈등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통신 장비 보안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5G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는 자체 보안 검증, 국제 표준 인증 등을 통해 전사적으로 보안 이슈에 대응하며 미중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명완저우 부회장을 조건부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구속을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미중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어 국내에서도 이들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화웨이는 통신장비 시장에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HS마킷에 따르면 화웨이의 통신장비 분야 시장 점유율은 22%로 세계 1위다.

이번에 체포된 명완저우는 화웨이를 설립한 런정페이의 딸로, 실질적인 2인자다. 외신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이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갈등 전선이 확산되며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 이어 일본 정부 또한 중국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보안'이다. 2012년 화웨이 장비가 스파이 활동에 악



화웨이 명완저우 부회장겸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용될 수 있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보안 이슈가 불거졌다. 올 들어 미국 상원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 기관이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부가 장비를 악용,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불법 수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도 긴장을 늦추

지 않고 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모두 화웨이의 고객사다.

특히 유선망 사업에서 이동통신 3사는 화웨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KT와는 농협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전국 6200여개 농협은행뿐 아니라 단위농협, 축협을 네트워크로 잇는 전용회선을 구축하는 게 중점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총 12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 은행의 경우 보안 문제가 불거지면 금융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장고 끝에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LG유플러스의 고민도 크다. LG유플러스는 5G 기지국 4133개를 설치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5G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이 화웨이 장비를 주력으로 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안과 관련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웨이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전 공급망에 대해 보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불러 소스코드까지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제검증기관의 도움을 받아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안 우려를 불식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는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개발검증시험(DVT) 등 자체 보안 검증을 강화하고, 정부의 보안 가이드라인 항목 준수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보안 관련 강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보보안을 위한 국제 표준인 CC인증과 관련해서 이미 검증 절차를 시작했고 내년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의 5G 보안기술자 문협회의 지원을 받아 미비점을 발견하면 즉시 개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민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신축 건물에 5G 인빌딩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건물 내 5G 안테나 개발

5G 사각지대 없애는 인빌딩 중계기
대형건물 안에서도 원활한 통신 가능

LG유플러스는 건물 안에서 스마트폰 등 5G 단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5G 인빌딩 안테나 개발을 완료하고 설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형 건물들은 벽 등이 많기 때문에 전파가 건물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손실율이 높아 롱텀에볼루션(LTE), 5G 등 무선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인빌딩 중계기, 인빌딩 안테나 등 인빌딩 전용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5G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고 5G 인빌딩 중계기가 설치되면 건물 밖은 물론 대형 건물 안에서도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 안테나를 중소 제조사인 선우커뮤니케이션, AT&S와 함께 개발했다.

새로 개발된 5G 인빌딩 안테나는 5G 주파수와 LTE 주파수를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안테나를 설치하면 향후 건물 안에서 안테나를 교체하거나 별도의 5G 용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불편함 없이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김나민 기자

KT, 스웨덴에도 5G 노하우 전수

'5G 디벨롭먼트 세미나' 참여

KT가 스웨덴에도 5G 노하우를 공유했다.

KT는 11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에리슨 본사에서 열린 '5G 디벨롭먼트 세미나'에서 5G 차별화 기술 논의와 평창 올림픽 성과 및 상용화 계획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주요 통신 사업자와 제조사를 초청해 5G 기술 협력과 활



용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릭슨이 주최해 스웨덴 '텔리아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와 제조사가 참석했다.

KT는 국내 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지난 1일 상용화한 5G MHS 현황을 소개하고 새로운 서비스 준비 내용을 설명했다. 에릭슨과 초고신뢰 저지연통신(URLLC) 등 기술 상용화 협력도 약속했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위아, 4륜구동 통합제어 부품 양산

'전자식 커플링' 국내 첫 개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장착

현대위아가 전자식 4륜 구동 통합 제어 부품인 '전자식 커플링'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양산한다.

12일 현대위아에 따르면 전자식 커플링은 지형 조건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자동차 네 바퀴에 배분하는 AWD 통합 제어 부품이다. 이 전자식 커플링은 11일 출시된 현대차 팰리세이드에 장착된다. 현대위아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2024년까지 연 70만대 이상의 전자식 커플링을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자식 커플링은 글로벌 부품업체 마그나파워트레인과 현대위아가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이 양산할 예정이다.



현대위아 연구원들이 12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4륜 구동 통합 제어 부품인 '전자식 커플링'을 테스트하고 있다. /현대위아

현대위아의 전자식 커플링은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 머드 모드 등 험로 주행 모드를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1초당 100번의 연산으로 주행 상황이 바뀌는 것을 감지, 0.15초 내로 최적의 구동력을 바퀴에 배분하도록 하는 등 속도를 극대화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 지역의 데스밸리 등 사막 지역과 스웨덴 아르예플로그 지역에서 강도 높은 혹서기, 혹한기 테스트를 2년 넘게 진행했다"며 "어떤 노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자식 커플링 양산으로 AWD 구동 및 제어부품을 모두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호반그룹, 협력사 상생협력기금 200억 출연

협력 기업의 기여도 따라 인센티브
하도급대금 전액 열흘내 지급 약속

호반건설 등을 계열사로 둔 호반그룹이 협력사를 돕기 위한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출연하며 동반성장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호반그룹이 출연기로 약속한 200억원은 중견기업, 건설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호반그룹은 상생협력기금 200억원을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하고 협력 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호반그룹은 호반건설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호반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협력 확산과 건설 협력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호반산업 김진원 대표, 호반건설 송종민 대표,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경우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하도급대금 전액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2차 이하 협력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정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하도급 대금 10일 이내 지급은 전 계열사로 점점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룹내 계열사에 상생결제시

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협력사가 원가이하로 무리하게 입찰할 때 적정 납품단가를 심의·조정하는 저가심의제도 운영 등 결제환경 개선 노력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